



##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

2006 · 2  
Febr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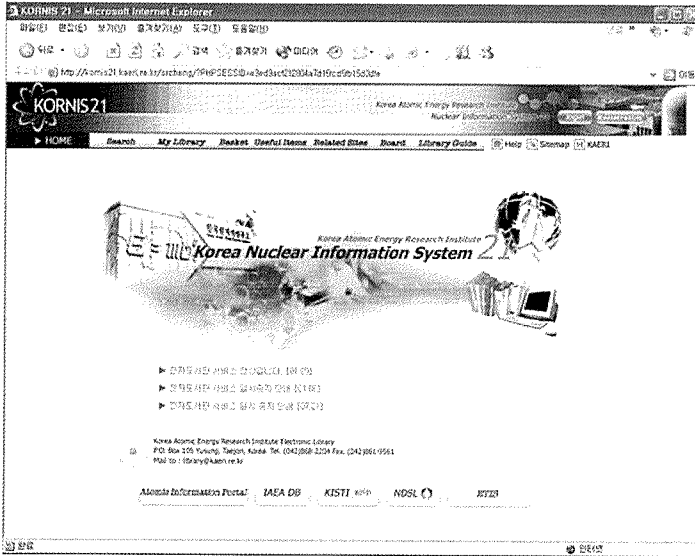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59년 원자력원 산하의 연구소로 첫발을 내 디딘지 46년의 연륜을 지닌 국내 연구소중 가장 오래된 연구소로서 국내 유일의 국가 원자력 전문연구기관이다. 원자력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과 다양한 연구영역의 확대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중수로·경수로 핵연료의 국산화, 세계적수준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설계·건설, 한국 표준형원전(KSNP)의 개발은 국가원자력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나아가 21세기 첨단시대를 대비한 해수의 담수화가 가능한 일체형 원자로 SMART, 경제성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제4세대 원자로(GEN4), 원자력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개발 및 양성자가속기를 통한 연구영역의 확대와 방사선이용기술 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된 각종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가공, 축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필요로 하는 연구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기술정보실은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적응해 오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자인 연구소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제공하여 국가 원자력전문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1년도에는 대부분의 도서관 시스템이 Client-Server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던 때에 완전 Web기반의 첨단 기술정보시스템인 「NUCLIS21」(NUCLear Information System 21)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NUCLIS21」에서는 NDSL(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과 연계한 해외학술지의 통합검색과 전자원문의 원클릭 이용, 연구소의 경영정보시스템(MIS)의

INIS에의 입력량은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입력량 순위 세계 6위(년간 약 3,500건)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INI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3년 부터는 INIS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Host site(www.inis2.com)로 지정되어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서 INIS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원자력분야의 국가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NUCLIS21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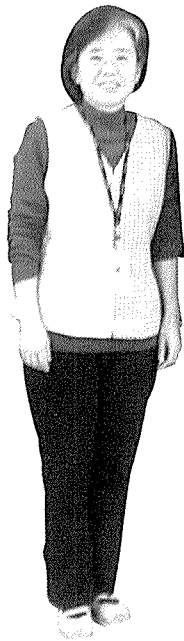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원문DB구축, 원자력 전문가를 위한 원자력 전문 이미지DB 구축과 연구원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연구논문의 원문DB구축 등 전자 콘텐츠의 확충 및 이용자 중심서비스(User-centered information service)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술정보실은 「원자력전문 DB구축 및 웹 디렉토리 구축사업」, 「UNION DB 구축사업」, 「에너지정보 유통사업」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은 물론 대국민 원자력 정보제공시스템인 「KORNIS21」(KORea Nuclear Information System 21)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국민 정보제공활동도 함께 수행하여 「국가원자력전문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술정보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운영하는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의 국가센터(National Center)로서 국내 발생 원자력정보의 INIS입력과 전체 각 INIS회원국이 입력한 INIS DB이용의 국내확산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NIS에의 입력량은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입력량 순위 세계 6위(년간 약 3,500건)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INI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3년 부터는 INIS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Host site(www.inis2.com)로 지정되어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서 INIS에 대한 주도적

인사, 회계, 연구과제 정보 등과 연동한 수서업무, 이용자관리업무, 원문복사 신청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소장장서 중 해외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기술보고서(paper or microfiche) 자료는 약 80여만 건에 달하며 국내에서는 원자력연구소만이 소장하고 있는 이용도가 활발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최근에는 보고서 원문파일(CD-ROM)을 입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원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정보실은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검색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심층 주제조사서비스, 연구소내의 특허 출원시 반드시 기술정보실을 거쳐야 하는 특허조사·분석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번역 서비스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즈음은 「NUCLIS21」을 한 단계 up-grade 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 그리고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원자력분야의 국가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의 무한 경쟁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 적응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기술정보실로서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에 기술정보실에서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보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접하는 「찾아 가는 기술정보서비스」를 모토로 우리의 귀중한 고객 즉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정보서비스, 고객 개개인에 맞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실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INIS2 Homepage 화면

